

Book review

‘여성’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

REFERENCES

Women in Medicine: Career and Life Management (2002)

이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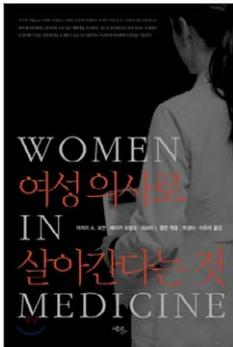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Soo Hyun Lee MD

Division of Medical Oncology, Dep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정리 : 이수현,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0번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Tel : 02)2228-8127 • Fax : 02)393-3652 • E-mail : socmed@yuhs.ac



저 서 : 여성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

저 자 : 마저리 A. 보먼, 에리카 프랭크, 데보라 I. 앨런 공저

역 자 : 박경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이유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공역

원 제 : Women in Medicine: Career and Life Management (2002)

출판사 : 에코리브르

출판일 : 2011년 3월 30일

쪽 수 : 320쪽

아주 사적인 문제부터

결혼이나 임신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양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아줌마를 고용할 때는 어디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은가. ‘여성’ 의사로서 남편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가, ‘여성’ 의사로서 이런 문제를 상의할 여성 의사나 혹은 동료 남자의사를 만나기 쉽지 않다. 여성 ‘의사’로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위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이런 사적인 숙내를 드러내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와 상의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왠지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다. 그러나 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들은 ‘여성’ 의사의 일상, 생존, 직업의 유지를 위해 매우 근원적인 이슈들이기도 하다.

많은 ‘여성’ 의사들은 나보다 더 앞선 시대를 살아온 선배 ‘여성’ 의사 멘토가 별로 없다. 친정엄마가 여자 형제들과 상의하면서 이런 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주 공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성 ‘의사’로서 무슨 과를 하는 것이 좋은가, ‘여성’ 의사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과를 선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학계에 남거나 직위를 유지하려면 어떤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가, 개업을 하여 성공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여성’ 의사로서 성공적으로 의사 환자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노후가 필요한가, 여전히 ‘여성’ 의사에게 존재하는 ‘유리

천장'을 어떻게 깨부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공적인 문제들은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전망에 관한 것들을 포함한다. 거기에 '여성' 의사이기 때문에 추가로 고민해야 할 것들이 추가된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집에서도 충분히 후원을 받으며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기까지 어찌면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직면할 상황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 병동실습기간 동안 병원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어렵듯이 고민하는 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의대를 다니는 모두의 바람은 우수한 졸업성적, 이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만 그 이후로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여성의사로 살아간다는 것'.

이 책은 여성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을 삶의 여정을 기술하듯이, 단계별로, 주제별로 분류하고, 다양한 통계와 연구문헌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모를 고용할 때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가, 학계의 여성 의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아마도 수많은 선배 여성 의사들이 나름의 노하우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지금의 지위와 역할을 유지해 오셨을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좀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상상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고민과 정보들이 전달될 길이 없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모여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토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높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12명의 여성 의사들이 공동필진으로 참여하고 세명의 여성 의사가 엮은 책으로 발간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경아, 이유미 교수가 번역한 책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다.

책을 읽다보면 여성의사의 전형이 머리에 그려진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 없는 여성의사들의 삶과 고민, 여자로서 의사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남자의사들과는 다른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는 과정은 마찬가지로도 알 수 있다. 이미 여자의사로 살아가는 의사들에게, 아직 의사가 되지 않은 의대생에게, 이 책을 통해 여의사로서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쉽게 조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역자들의 마음이 전해진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개별적인 특수성과 처한 환경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지평에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 책은 여성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조잔한 것까지도 논평하며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비평한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책을 읽으며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구절, 종소리와 상처.

아마 지금의 내 처지와 심정을 잘 표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여성의사로 살아가는 미래의 어느 시점, 나는 이 책의 다른 문구에서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종소리와 상처

수련 기간 동안 끊임없이 나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부적절한 평가와 교묘한 불공평함으로 공격을 받는 데 소비해야만 했다. 표면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별 것 아니야' 라고 타일렀다. 이러한 조그만 사건들은 나의 자존심에 울리는 '종소리'였다. 여러 번 '종소리'를 겪고 난 후 또 다른 '별 것 아닌' 평가나 행동으로 시작된 '상처'가 나타났다. 상처가 나타나면 감정이 억제되지 않아 분노가 일고 눈물이 났다. 최근에는 대부분 '종소리'의 가해자는 늘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내 부적절한 반응에 혼란스러워한다.

나는 '종소리가 날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대로 흘러가게 했다. 나는 내가 지나치게 민감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리고 일을 지원해주는 환경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 길을 개척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길을 가던 중에 정다운 마을에서는 멈춰 설 줄도 알게 되었다.